

벤처 관련 정책

● **특허청, 녹색기술, 부품소재 중기에 '지재권(IP)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 2차 지원**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첨단부품·소재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IP)-연구개발(R&D)전략지원팀을 파견하여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2009년 첨단 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의 2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면, Patent Troll 등 외국 선진기업으로부터 공격적인 특허공세를 받아, 특허소송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이 특허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첨단, 부품소재 분야에서 IP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총 60억 원 규모로, 첨단부품소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이중 최대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과제수행비용의 80%(최대 9,400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과제별 20%에 해당하는 기업부담금 역시 전략수립 후 해당기업이 전략에 기초하여 국내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 경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품·소재산업은 고용유발 등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수출효자산업으로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원천기술에 대한 지재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심각한 대일무역역조를 일으키는 분야로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어 왔다. 이에 동 사업을 통해 부품소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단계별(기획/수행/완료) 맞춤형 지재권 획득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성장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R&D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노동부, 5월 14일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 인상**

노동부는 '09. 5월 14일부터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약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을 20% 인상,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별로 매월 15~60만 원씩 1년간 지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18~72만 원씩을 1년간 지급된다. 이와 같이 '04.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려금 수준을 대폭 인상하게

된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일자리 감소와 실업자 증가 등의 고용여건을 감안할 때,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고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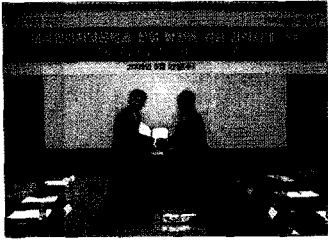
* 취업자 : '08. 3월 2,330만 명(전년 동기 대비 18.4만 명 증) → '09. 3월 2,311만 명(전년 동기 대비 19.5만 명 감)

* 실업률/실업자 : '08. 3월 3.4%/810천 명 → '09.3월 4.0%/952천 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09. 5월 12일까지 1만 1천개 사업장에 17,419명을 지원하였으며, 285억 원 지급되었다. 대상자별로는 장기구직자가 8,359명(14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저학력 청년층 5,652명(94억 원), 고령자 1,916명(21억 원), 장애인 1,193명(23억 원) 순으로 지원되었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장려금 수준 인상조치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특히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밝혔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 6,000억 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정책자금의 조기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1.6조 원을 추가 조성하여 5월 11일부터 추가지원했다. 금번에 추가 지원 되는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 원, 소상공인지원금 5,000억 원, 창업자금 1,500억 원, 신성장기반자금 1,2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억 원 등 1조 6,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하반기 이후의 자금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월별로 나누어 매월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였고, 특히 모기업의 경영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도 상황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키로 하고, 상환연장 규모는 1조 5,000억 원 규모로, 대상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금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 상황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은 우량기업,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상환연장을 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 ETRI-나우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지난 27일,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ETRI DC협동연구팀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나우콤(대표 김대연, 문용식)과 국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력 양해각서(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으로 ETRI 「온라인DC테스트베드 사업」과 나우콤 「Grid CDN 사업」의 활성화 및 「저작권 필터링 기술」의 산업화 협력 등을 통해 양 기관과 국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개발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ETRI가 수행중인 온라인DC테스트베드 사업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대규모 베타테스트에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서버, 회선)와 콘텐츠 서비스 운영기술(보안, 부하테스트, 서버가상화)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DC테스트베드 사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46개 콘텐츠를 지원·배출하였고 주요 사례로 (주)게임하이 「데카론」, (주)에당온라인 「프리스톤테일」, (주)이스트소프트 「카탈온라인」, (주)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주)이온소프트 「프리프」, (주)엠게임 「열혈강호온라인」 등 다수의 콘텐츠가 국내·외 시장진출 및 상용화에 성공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 한국전기연구원, 12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국책연구기관이 국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관 고유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유태환)은 기관 고유의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한 협력분위기 조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11일 창원 본원에서 12개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경제살리기 및 연구개발 속도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세계적인 불경기에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가적 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유태환 원장, 김호용 선임연구본부장을 비롯한 전기연구원 연구부서본부장들과 대신산업, 리노공업 등 기술지원 대상 12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은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생산기술혁신 등의 과제를 공모하여 1년 이내에 제품화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연구경험과 고도의 연구능력을 보유한 전기연구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 KIST, 슈퍼 전자현미경 가동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슈퍼 전자현미경이 정부출연연구소에 설치되어 가동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금동화)은 7일 하월곡동 본원에서 슈퍼 전자현미경 가동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단색 전자빔을 사용함으로써 나노 영역에서의 밴드갭 측정이 가능해 기존 국내 최고수준의 전자현미경에서 0.7eV 미만이었던 에너지 분해능이 0.15eV 미만으로, 2Å 미만이었던 영상 분해능이 0.9Å 미만으로 향상되어 원자의 실제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나노스케일의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나노프로브가 장착된 집속이온빔 장치도 함께 설치, 가동되어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장비는 지식경제부 "차세대반도체분석종합지원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KIST는 이 외에도 국내 거대과학 시설인 포항방사광 가속기 전용 빔라인 2기, 1GHz NMR 및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냉증성자 빔라인 등 대형 연구 시설을 갖추어 나노, 바이오, 재료 분야 및 융복합 연구를 위한 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분석 클러스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북도,

미래 전북성장동력산업 이플 강소기업 11개유치

전북도와 완주군(김완주 도지사), 우석대학교, (재)전북테크노파크는 5월 13일, 전북도청에서 전북과학연구단지 내에 입주하는 (주)아이솔테크놀러지, 디에이치씨(주) 등 11개기업/연구소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주 도지사와 김희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정업 완주군수, 라종일 우석대학교 총장과, 기업 측에서는 (주)아이솔테크놀러지 이홍규 대표, 디에이치씨(주) 오석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 이전하기로 한 11개 기업(연구소)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RFT(방산선용합기술), 신재생에너지(수소), IT, NT기업들로써 전라북도의 4대 전략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며, 그동안 전라북도와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RIC), 전북TP에서는 전북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엄선하였고, 꾸준히 공을 들여 유치에 성공한 유망 중소기업들로써 11개 기업에서 304억 원을 투자하여 향후 4년 동안 5천억 원의 매출과 94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강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불황파고 넘는다

최근 대내외 경제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압박을 완화시키고자 강원도(김진선 도지사)에서는 지난 1월 12일부터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은행자금 대출액이 작년대비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금융권의 협조 하에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130억 원이 늘어난 1,800억 원으로 확정하여 지난달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더불어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작년동기 대비 5배 증가한 168억 원을 지원하였다. 2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대비 17개 기업 36억 원이 증액된 33개 기업 7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L-Biz자금은 전년 2월말까지 실적이 전무하였으나 금년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경우 이미 10개 기업에 95억 원이 지원되었다.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액은 337억 원으로 지

난 해 동기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 주고자 도에서 대출이자 중 2%를 1~2년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줄임으로써 타 시도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혜택을 대폭 늘린 결과라고 분석된다.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202억 원으로 지난해 160억 원 비해 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135억 원이 이미 용자되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 경상북도, 지능로봇발전협력단 발족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5월 19일(화) 오후 3시에 경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로봇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하는 「경북 지능로봇발전협력단」을 발족시켰다. 경북도 「지능로봇발전협력단」의 구성은 국내외의 로봇 관련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의 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50인 내외의 전문가 그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협력단은 로봇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의 충분한 공유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생, 디자이너, 인문학·사회학 전공자도 참여토록 하는 융합형 인재풀로 구성할 방침이다. 협력단 주요기능은 로봇산업육성 실행계획 수립, 로봇기술로드맵 작성, 포항지능로봇연구소의 국가전문연구기관 선정지원, 지능로봇플라자 조성, 주요 연구개발 과제 발굴, 기업유치,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 로봇산업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로봇 산학연관 협력체이다. 특히, 지능형로봇사업세부실행계획은 로봇산업 기반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분야와 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한 R&D분야 그리고 지역기업의 로봇산업 유도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지원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인 Action Plan을 수립하게 된다.

2009년도에 대경권 선도산업인 IT 융합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강화사업으로 69억 원이 지원되며, 이는 의료로봇, 소방방재로봇, 기업지원 SME로봇 등의 핵심분야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세부과제 발굴을 통한 인센티브 사업의 확보에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한편 경상북도의 「지능로봇플라자」 조성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지능형로봇산업의 조기 시장창출 전략프로젝트로 기업과 소비자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로봇산업육성 기반조성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2010년 국가사업으로 반영 추진 중에 있다.

● 대구은행, '녹색성장펀드' 출시와 함께
공익기금 조성 협약식 가져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5월 7일 (목)부터 녹색성장 펀드인 '미래에셋 녹색성장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와 '마이더스 그린

SRI 증권투자신탁(주식)'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녹색성장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와 '마이더스 그린 SRI 증권투자신탁(주식)'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이다. 대구은행은 펀드 출시에 맞춰 7일 오후 본점에서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이사 이철성),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대표이사 최재혁)과 함께 공익기금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익의 10%를 매년 출연해 환경보존 사업을 비롯한 공익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익기금 조성 협약식은 하춘수 은행장의 최우선 경영방침인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핵심이 녹색성장이고, 우리 정부 또한 2018년까지 GDP(국내총생산)의 38% 수준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녹색산업의 성장성은 매우 밝다."라고 전망했다.

● 우리은행, '법인 후불하이패스카드' 출시

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은 후불형 하이패스 기능을 탑재해 고속도로 통행로도 할인받고 기업카드 포인트까지 적립받을 수 있는 '우리 법인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법인 후불하이패스카드」는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공용카드와 사용자 지정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며,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과 연말까지 도로공사 고속도로 5% 할인, 이용금액의 0.1%를 기업카드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의 사용방법은 차량용 단말기(OBU)에 카드장착 후 톨게이트를 무정차로 통과하거나 터치(Touch)단말기가 설치된 톨게이트에 카드를 접촉 또는 요금소 직원에게 통행권과 후불 하이

패스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후불교통카드처럼 카드 결제일에 결제하면 된다. 우리 법인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국도로공사의 모든 고속도로를 비롯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의왕-과천간고속도로, 일산-퇴계원고속도로, 산공항하이웨이 등 대부분의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의 특성상 도난 등 부정사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신용거래는 불가능하다.



● 은행 연합회,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

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08. 7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후 현재 은행의 개인 연대보증은 기업대출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08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개인 연대보증부 기업대출 잔액은 59.6조 원으로, 기업대출(471.4조 원)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개인 연대보증부 자영업자 대출은 4.3조 원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보증피해 방지 및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을 실질적 기업소유주(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자)에 한하여 허용하는 등 최소화범위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 기업소유주로 간주되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 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한다. 8개 주요은행의 연대보증 취급현황을 토대로 금번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의 기대효과를 시산한 결과, 연대보증부 기업대출의 보증인수는 12.2% 감소, 보증금액은 1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연대보증부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보증인수 28.6%, 보증금액 23.4% 감소 추정). 은행은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규반영·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